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李 鐘 允 (초청연구위원, 외대교수)

序

일본의 한층 확대된 경상수지흑자와 일본에 대해 공격적인 美 클린턴정권의 등장으로 최근 다시 円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일본경제는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對日赤字에 시달려 온 한국으로서는 이 円高현상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對日本 수출을 증대시키고 對日逆調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최근 円高에 대한 일본경제의 대응방식

종래 일본경제의 円高에 대한 대응을 보면 원 셋트(one-set)형 산업조직, 중층적 하청조직 및 폐쇄적 유통조직의 존재 등 이른바 일본경제의 특징적 발전구조를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일층 고성능 기계·시설로의 개체 및 코스트를 높이는 저급 부품류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 왔다.

그런데 최근의 円高는 円貨의 구매력을 반영하는 對美換率과 실제환율간의 괴리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가령 전자가 1달러당 160円대인데 비해 실제환율은 1달러당 95~100円대로 되어 일본경제로 하여금 달러표시 심각한 高物價상태로 化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円高에 대한 종전의 대응방식으로는 소비자의 불만에 더하여 생산자의 불만까지 고조시키게 됨으로써 더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대응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일본기업의 대응을 보면 종래에도 그러한 반응을 보였었지만 최근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큰 폭으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다든가 투입되는 부품중 노동집약적 부품류를 중심으로 수입비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제조원가를 인하시켜려고 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의 앙케트조사에 의하면 응답기업 300개 중 70% 이상이 해외로의 생산이전 내지는 해외로 부터의 부품·자재의 조달을 증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円高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일본의 대표적 기업들이 자사내에서의 성장의 한계를 타파함과 동시에 코스트절감을 꾀한다는 필요로부터 외부자원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그만큼 자원확보량을 줄이게 함은 물론, 신제품개발 활동 등 새로운 성장도 대담하게 추진하게 하는 이른바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략적 제휴가 종래의 계열화와 다른 점은 계열화가 생산의 하청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인 데 비해 전략적 제휴는 기업활동전반에 관한 것이며, 兩提携企業의 핵심적 과정의 결합이라고 하는 대등한 관계의 설정이다.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으로 초래되는 공동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소프트화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비교열위산업분야인 소재산업에 있어서의 円高대응을 보면 1달러당 100円이 될 때까지는 円高에 따른 제조원가상승분을 제품의 생산축소 및 이와 연동시킨 가격상승이라고 하는 생산조정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円貨의 가치가 1달러당 100円을 돌파하자 일본의 소재시장에서 국내재와 수입품간에 경쟁이 보다 치열해져 종래와 같은 국내재가격의 일방적 인상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관련기업의 합병 등을 통해 코스트를 삭감하거나 주력상품을 수입품과 경합하지 않는 분야로 전환하는 등의 전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통기업들의 주도로 재고품처리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가격인하경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시장가격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간에 현격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가격차이를 극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격혁명이 지속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른바 리엔지니어링이 대담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종래까지의 지나친 다품목소량생산체제를 지양하고 품목수를 상당수 축소시킴으로써 단일품목당 규모의 경제효과를 높이고 부품의 공통화를 추진하며 각 품목별 라이프사이클의 단축에서 오는 감가상각비 부담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점포개발과 物流시스템의 재구축에 의한 物流費用削減 노력도 여러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소폭의 원가절감이 아닌, 획기적인 원가절감에의 요구는 중층적 하청조직이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산업조직에까지 상당한 변경을 가하게 하고 있다. 곧 산업계는 저마다 생존적 차원에서 코스트삭감을 향해 전력투구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있는데, 각 업계의 이러한 절박한 사정은 하청계열업체에게도 전달되어 부품·자재류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가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하청업체들이 거기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계열·하청거래라고 하는 일본특유의 안정적 거래관계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상에 걸쳐 円高에 대한 민간기업계의 대응을 살펴보았는데, 정책당국도 통산성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円高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통산성은 1달러당 100円대를 넘어서는 상태가 지속되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산

업기반이 흔들리고 국내산업이 공동화될 지 모른다는 인식하에 그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여 円高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분야로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에게 공장을 임대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고용확보 및 産業空洞化를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大藏省은 円표시 銀行引受어음 등 円資金を 단기운용하는 시장을 육성하여 円의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円표시 수출비율을 높여 산업계에 대한 円高의 영향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규제완화 및 내외가격차의 시정 등 구조개혁을 통해 円高로 인한 산업공동화의 가능성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의 투자로 유도함으로써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기업의 일본시장침투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円高 활용방안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여건의 출현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對日輸出의 확대, 나아가서 대일 적자폭의 축소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

일본기업들이 円高에 따른 원가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조달을 크게 확대시키려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로서는 그들의 이러한 해외조달분 중 우리의 몫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기업의 기술적, 품질적, 가격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은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일본기업들이 축적한 類의 개량·생산기술을 도입, 체화시키도록 하여 이러한 기술로 부품·자재류를 생산·공급하면 그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본형 기술을 우리 기업속에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지금과 같은 건별, 개별적 도입방식을 지양하고 일본기업속에 축적된 全기술체계의 유기적 관계를 철저히 분석·파악한 후, 우리의 기술체계와 대비시켜 그들의 특징적인 점을 체계적으로 도입·소화해 가는 접근방법을 활용하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對日輸出의 증가 및 일본형 기술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해외진출을 꾀하는 일본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절실한 기술 분야에 집중시켜 공단 등 사회간접자본의 조성 및 세제상 우대조치와 같은 획기적인 유치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R & D(연구개발)활동과정에서 일본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움직임에 우리 기업도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그들의 연구개발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발전적 차원에서 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 제휴선으로 일본의 일류기업만을 추구하면 우리가 제공할 것이 없어 외면당하기 쉬우므로 여기에 급급할 필요가 없고 우리와 보완의 여지가 있는 연구자원을 축적한 기업이면 기업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제휴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활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수집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본의 가격혁명, 유통경로의 단축 및 중층적 하청조직의 파괴현상은 우리에게서는 극히 유리한 환경의 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활용방안의 하나로서는 주요 대일수출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공장도가격과 일본의 최종 수요자가격간에 특히 마진폭이 큰 품목을 명확히 하고 이들 품목의 유통마진이 왜 높아졌는지 그 원인 내지 소재를 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적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유통마진의 획기적인 단축에 경영력을 집중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結 言

위에서는 최근 円高 극복을 위한 일본경제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기업의 몇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로서는 円高현상에 대한 일본경제의 다양한 대응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층 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수립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필자 약력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1969)

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1984~)

일본 一橋대학 경제학 석사(1979)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1993~)

일본 一橋대학 경제학 박사(1984)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후원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근거 :

- 법인회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
- 개인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4호

—후원회 가입 문의 : (전화) 551-3334~7

(Fax) 551-3339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